옛 하나님 새 하나님 교체시기

(예레미야 44:1~30)

15.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6.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17.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19.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옛 하나님 새 하나님 교체시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옛 하나님 새 하나님 교체시기'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으로써 역사 이전 영원 전부터 계셨고 역사가 끝나고 난 뒤 영원까지 계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께 제목에서 등장하는 교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체라는 말이 어울리는 대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엔진오일은 교체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냉장고나 TV 같은 전자제품도 교체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체는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당되기도 합니다. 최근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보면 후반전 말쯤 되면 손흥민 선수가 교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업에서는 새해가 되면 신구임원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도 이렇게 교체의 대상이 되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을 교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생각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체감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감의 차이를 바꾸는 것을 교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감은 마치 결혼생활과도 같습니다.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 속마음을 다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녀관계에서는 더 심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실제 자녀의 모습은 부모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객관적으로 단 한 분이 존재하실 뿐이지만 사람마다 마음에 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몇 가지 대표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교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기 전과 부르심을 받고 나서 느끼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에서는 새 사람에 대해 곳곳에서 언급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24절에서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9~10절에서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뒤에 정말로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새 사람을 계속 언급한 이유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옛 하나님의 상태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도 새롭게 교체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새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옛 하나님을 고집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길로써의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객관적으로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옛 사람에 맞추어진 하나님에 대한 옛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옛 생각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십자가 생활화도 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여전히 옛 사람에게 맞추어진 옛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길로 삼아서 바른 목적지를 향하면 됩니다. 바른 목적지가 바로 새 하나님입니다. 옛 하나님에서 새 하나님으로 교체되지 않으면 복음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교체시기의 마지노선을 알려주는 표징이 있습니다. 이 교체시기를 완전히 놓쳐버린다면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던 옛 하나님조차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기 직전의 상황이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조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으로 이주하여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게 주어진 상황과 삶의 조건이 개선되어야만 한다는 바람을 굳건히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의 바람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태도가 합쳐져서 말씀을 조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껍데기 속에 이 세상에서 바라는 환경 개선의 희망과 확증을 채워 넣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환경 개선을 위한 도우미로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옛 사람에 맞추어진 옛 하나님의 대표적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개선을 위한 도우미로 여기고 사후세계에 대한 보험정도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죽은 뒤에 천국가야 하니까 보험처럼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가진 옛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은 목적이 달성되면 버려집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보험으로써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버리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삶의 환경이 개선되어감에 따라 도우미로써의 하나님은 버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껍데기 안에 이 세상 삶의 호전과 도움이라는 내용을 집어넣은 조작의 결과입니다. 먹고살만해지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통합측 교단만 해도 한 때 450만 명에 이르던 교인이 현재는 270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조차도 허수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입니다. 통합측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교회에서 교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교회가 위축되는 것은 옛 하나님을 새 하나님으로 교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장에서 예레미야와 그의 서기관 바룩은 군대장관 요하난을 비롯한 이주 세력에 의해서 애굽으로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가 바벨론과 내통할 것을 두려워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애굽에 잡혀온 중에도 예레미야의 예언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애굽의 중심지였던 놉과 바드로스 지방까지 거주지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이들에게 나타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민 됨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애굽인들의 생활과 문화에 철저히 동화되어 마음이 먹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우상숭배라는 측면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마주하게 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조국이 망한 것이 우상숭배 때문이었음을 상기시키는 예언을 합니다. 애굽으로 이주했다고 해서 선민들의 우상숭배를 묵과하시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망하게 될 것이고 이들 때문에 애굽조차도 심판을 당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BC.561년에 애굽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등장하는 애굽의 바로인 호브라는 암살을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를 하나님이 벌하시는 표징으로써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러한 예언을 받아들이는 유다 백성들의 태도가 이주 이전보다 훨씬 악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조국에 있을 때에는 우상을 숭배함에 대해서 예언자들의 말씀을 들으며 어느 정도의 가책을 느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무시할 뿐이었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에 대해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은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레미야의 예언과 설교를 반박합니다. 우상숭배만이 자신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번영과 부흥을 이루게 해주는 길이라는 주장을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조국이 멸망한 원인도 우상숭배를 멈추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남 왕국 유다의 역사에서 우상숭배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시기는 므낫세 왕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성전 뜰에조차 일월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놓았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몰렉에게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우상숭배에 빠뜨린 므낫세 왕은 다윗 왕의 40년 통치보다도 더 긴 55년간의 통치를 이룹니다. 또 통치기간 동안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나라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를 근거로 우상숭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므낫세 이후에는 아들이었던 아몬이 왕위에 올랐으나 고작 2년을 통치하다가 죽고, 손자인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퍼뜨린 우상숭배를 일소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침공을 받아 므깃도에 나가 전투 중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의 유다는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서게 되었고 쇠퇴일로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애굽으로 이주한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죽음과 유다의 쇠퇴가 므낫세 왕의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7~18절을 보면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여왕'은 '이슈타르'라고 하는 애굽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풍

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스다롯'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등장하는 우상입니다.
선민들은 이슈타르를 숭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폐기처분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폐기처분하기 위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 이슈타르를 섬기던 애굽의 강대함을 근거로 듭니다.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은 영토가 넓어서 전쟁이 일어나도 백성들의 생업까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었으며, 군사력이 강하여 백성들을 전쟁에 소집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나일강 삼각주의 생산력으로 언제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 와서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반면 애굽 백성들이 숭배하는 하늘의 여왕 이슈타르야 말로 힘 있는 신으로 느껴졌습니다. 선진국 애굽의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일찍이 선민들은 고향 땅에 있을 때에도 우상숭배로 바알과 이슈타르를 숭배하였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오히려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숭배를 중단한 후부터 궁핍해지고 칼과 기근에 망하게 되었다고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사실 선민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망하기 전에도 애굽처럼 견고한 평화를 누리던 시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늘 외세의 침입을 받았고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었으며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 북 왕국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멸망하고 남 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예는 많이 있습니다.
삼성은 원불교 집안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급격하게 부상한 것도 십자가 복음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제일 부호인 마윈 역시 복음신앙과 무관할 것입니다. 일본의 견고한 경제력과 세계 제일인 기초과학분야 역시 여호와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일본의 산업구조는 탄탄해서 대학을 졸업한 98%가 취직을 하고도 일자리가 남아돌아서 외국인을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무관합니다. 세계적인 장수마을도 일본에 다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도 이미 하나님을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선진국으로써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십자가 복음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은 재테크 주식 연금 보험 등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보장되었으니 교회를 나갈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인들이 줄어드는 이유도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와 똑같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십자가의 빨간 불빛이 거리마다 빛나던 시절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강남에서 목회를 하시는 선배 목사님께 직접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한 때는 양재동에서 강남까지 가는 거리에 백

여 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십년 사이에 70~80개의 교회가 사라졌다고 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위축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 교체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조건이나 환경의 개선을 꿈꾸고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도우미로 여겨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마음이 묶여있기에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절기 때에나 가끔 떠올려 볼뿐입니다.
우리나라는 끼니를 고민하던 시대를 벗어나 맛집 탐방을 다니고 해외여행지에 대한 선택을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삶이 윤택해짐과 동시에 삶을 개선하기 위한 도우미로써의 하나님은 더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목회자들과 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살릴까를 두고 몸부림을 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참여해본 모임에서도 느낀 것이지만 옛 하나님을 새 하나님으로 교체할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의 문제는 새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옛 사람에 맞추어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우미로 여기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옛 하나님을 교체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외부적 요소를 끌어들여 부흥을 꾀하려합니다. 세대에 발맞추어서 목회에도 과학이나 경영학을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왜 기독교가 세대에 발맞추어야 합니까? 기독교 복음은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옛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옛 하나님의 교체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새 하나님은 삶을 개선시키는 도우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세상 것을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옛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그 자체로 가지고 소유하고 벌어야 할 분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하나님으로의 교체입니다.
새 하나님은 어제 오늘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4000년 전의 아브라함도 새 하나님을 찾았고, 2000년 전의 예수님께서도 새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IT산업이 국가의 발전을 주도하는 지금 세대에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이 갖는 일은 내 몸이 처한 상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떠한 과격하고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지라도 결국은 땅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은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세태가 어떻게 변하든 문화가 어떻게 바뀌든 하나님 갖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갖도록 해주는 곳입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도 하나님을 갖게 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서 가져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새로우신 분이셔야 합니다.

옛 사람은 삶의 환경 개선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부적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우미로 여겨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옛 사람이 가진 옛 하나님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속의 우상들의 역할과 똑같이 여겨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불교를 믿었다면 불상이 가졌던 기능을 하나님께로 옮겼을 뿐입니다. 민속신앙을 믿었다면 삼신할머니의 기능을 하나님께로 옮길 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결코 새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신들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갖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한 도우미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신들과 다르게 스스로를 기쁨과 만족의 이유로써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선민의 갈등이 생겨납니다. 이 세상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끝내는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민들이 선택한 이슈타르는 일종의 부자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우리나라가 끼니를 걱정하던 상태에서 맛집을 탐방하고 생필품을 걱정하던 상태에서 명품을 찾는 시대가 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도우미로써의 옛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새 하나님으로 교체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부자 됩시다! 하나님 재벌 됩시다!”라는 모토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 한 유럽교회와 마찬가지로 쇠퇴하게 될 것이고 교인들은 떠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주민들의 주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봐야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니 더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부유함과 강대함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중국이나 일본도 강대해질 수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본문의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윤택함을 허락하시면서 선민들에게는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선민들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환경의 호전만을 바라고 있으니, 깨닫기를 바라시며 환경을 빼앗으시고 악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없어질 환경에 시선을 둠으로써 옛 하나님을 찾지 말고 이제는 새 하나님으로 교체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러한 옛 사람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삶을 주시하게 됩니다. 은근히 바라든 노골적으로 바라든 환경과 상황이 개선되기를 꿈꿉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옛 사람을 죽임으로써 새 하나님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내 삶을 위한 도우미 하나님에서 내가 소유하고 가져야 할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는 것입니

다.
세상에 대해 죽어서 환경의 개선을 꿈꾸지 않게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갖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 개선을 꿈꾸는 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옛 하나님인 도우미로 여겨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옛 하나님은 삶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버려지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열심히 재테크 방법을 공부하고 보험이나 연금을 따져보세요. 그래서 돈을 벌면 다양한 여행계획을 세워보고 맛집 기행이나 다니고 명품을 사면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윤택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고자 하신다면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도우미가 아니라 내가 직접 가져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이라면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하나님의 몫이 됩니다.
하나님 교체시기를 놓치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할 분이지 내 삶을 개선하기 위한 도우미가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삶의 개선을 꿈꾸는 나를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도우미로 여기던 옛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가져야만 하고 내게 충만히 임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교체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